

선교편지31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후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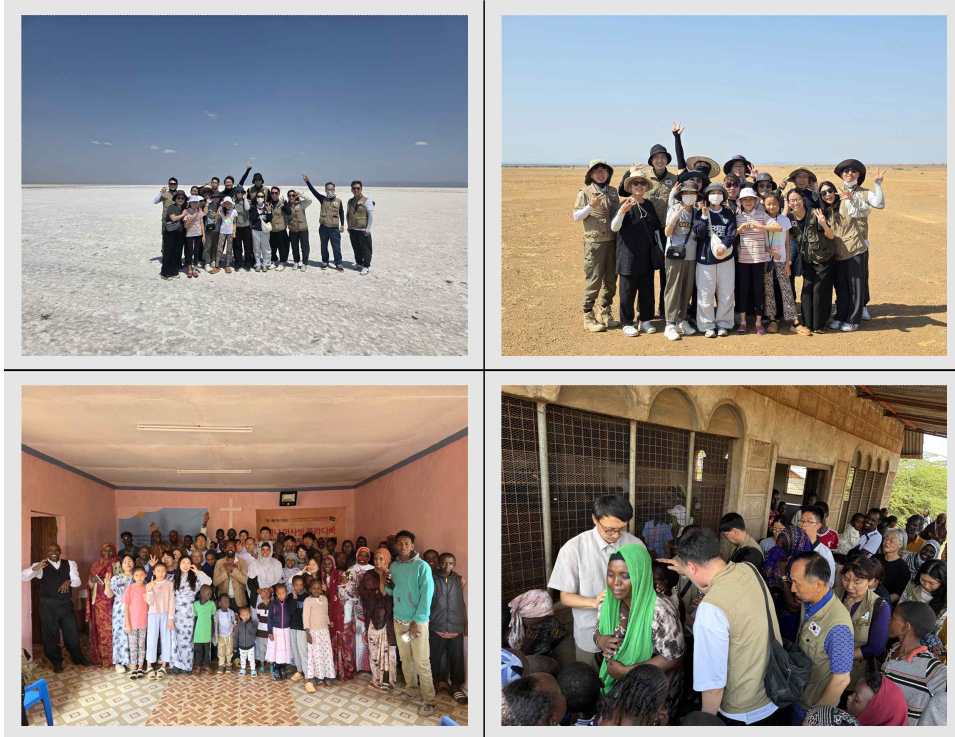
<칼라차 주변, 홀라홀라 교회 아이들 모습>

사랑하는 성도님과 동역자 여러분들~ 샬롬~

“나게니 바다다”(가브라어:“평안하신가요?”)

그동안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건기와 겨울이 지나고 있는 이곳은 사역하기 알맞은 날씨와 시원한 바람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칼라차’ 사역지로 이동하는 길은 아스팔트 공사가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는 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길이 너무 좋지 않아 하나님께 길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얼마 뒤 중국회사에서 길을 만들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에 대한 이슈들로 공사가 중단된 적도 있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전에 다녔던 길들 또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길을 갈 때마다 느꼈던 험하고 힘들었던 기억과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오거나 팀들이 올 때 너무 힘들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와 편안해진 길로 인해 익숙해진 평안함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일들이 당연해지거나 소홀해지고 잊혀 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위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친히 길을 만들어 주셨음을 믿고 늘 감사해야 함을 되새기었고 이곳을 지나갈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이야기나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그로 인해 은혜가 더하여지고 넘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이 오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만드신 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고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동역자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길 또 늘 감사와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울산세계로교회’ 단기팀 방문



〈세계로교회 단기팀 사역 모습〉

지난 겨울의 사역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지역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많이 덥지 않고 사역하기 적당한 날씨 속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셔서 참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 ‘울산세계로교회’에서 케냐 3기 단기팀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케냐로 출발하기 전부터 팀원들에게 영적전쟁이 있었지만 함께 기도하며 무사히 케냐로 입국할 수 있었고 입국하는 일부터 출국하는 순간까지 한 마음 한 팀으로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칼라차’로 향하는 길, 우기 때 온 비로 인해 ‘찰비’ 사막을 온전히 건너지 못했는데 팀이 오는 바로 전날 완전하게 길이 열려 쉽게 볼 수 없는 넓은 새하얀 사막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소금과 빛에 대한 묵상을 나누며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자연을 보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칼라차’ 주변 마을을 함께 돌며 복음을 전하였고 부채춤, 태권무로 함께 예배했습니다. ‘칼로’ 마을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일 예배에서는 보통 예배가 마치면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는데 예배가 마친 후에 기도를 받고 싶어하는 성도와 처음으로 교회에 온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아이를 업고 오는 마마 성도의 어린 자녀의 치유를 놓고 기도해 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사빗’으로 돌아와 ‘홀라홀라’ 교회를 섬겨 주셨고 너무 많은 아이들이 모여 정신이 없었지만 아이들의 스피커를 압도하는 큰 찬양 소리에 감동하며 기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섬겨 주셨습니다. 파송교회에서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올라다바’ 교회의 헌당식에서는 팀들을 위해 음식과 선물을 준비한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폐허가 된 마을에서도 기도하며 이 마을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랜 기간 기도로 잘 준비하셨음에 감사하였고 매일 밤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저희도 많은 힘을 얻었고 성령의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양재 온누리 여호수아 공동체’ 단기팀 방문



〈온누리교회 단기팀 지역 모습〉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누리교회’ 여호수아 청년부에서 저희 지역으로 단기팀이 오셨습니다. 작년 사역에서도 큰 도전과 은혜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일정이 변경되면서 ‘칼라차’까지 가는 긴 이동시간으로 인해 일정에 무리가 되어 ‘홀라홀라’와 ‘올라다바’ 교회만 섬기기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일정 변경으로 인해 ‘칼라차’를 가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게 하는 건 꼭 만나야 할 영혼이 있다든지 위험하고 피해야 할 일을 미리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홀라홀라’ 어린이 사역과 마마사역, ‘올라다바’ 지역에 ‘가브라’ 종족 마을에서의 전도를 잘 준비하도록 부탁을 드렸고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사역에서 작은 것 하나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셨고 아주 체계적이고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마마 사역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도 저희와 마마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올라다바’ 마을에서 전도를 할 때는 불타던 마을을 돌면서 팀들과 현지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돌면서 ‘가브라’ 종족에게 준비한 종족어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본 현지 교회 사모님께서 계속해서 이러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인원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이 함께 연합해서 전도할 때 나타나는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마사빗’의 일정이었지만 현지 성도들과 아이들 모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심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고 ‘홀라홀라’와 ‘올라다바’에서 복음을 전하며 현지인들이 사는 모습을 본 청년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음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팀이 한국으로 돌아가기까지 모든 여정을 함께하게 되어 ‘나이로비’와 ‘리무르’ 사역도 함께하면서 다른 선교사님의 사역지와 사역을 살펴보고 크게 도전을 받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방문 후 큰 깨달음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홀라홀라’ 제자훈련 졸업여행 및 캠프



〈캠프 사역 모습〉

‘홀라홀라’ 교회 제자훈련 받은 친구들과 함께 ‘나뉴키’로 졸업여행 겸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나뉴키’에 계시는 선교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이곳 현지의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시간을 보내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나뉴키’ 센터에 오는 학생들과 연합하여 캠프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나뉴키’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는데 여행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현지 친구들과 연합해서 캠프까지 진행하게 되어서 우리 ‘홀라홀라’ 친구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신식 화장실과 샤워실 사용을 어려워했으나 하운이 예윤이가 선생님처럼 잘 가르쳐 주어서 시설에 잘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3일의 여정에서 밤마다 집회를 열어 저는 강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아이들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어떻게 복음으로 나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지 나누었고 둘째 날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결단과 기도 시간에 십자가를 통해 죄를 회개하고 복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며 기도하였고 아이들 모두 기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캠프파이어도 진행하며 자신의 죄를 태우며 복음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피드백을 받아 읽어 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뜻깊은 시간이었고 일주일 동안 계속하자는 아이들도 있었고 다음에도 또 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물 고아원에 가서 많은 동물도 실제로 보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훈련의 다음 단계로 실제적인 적용을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모범이 되는 아이들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자 명단 - ‘보네, 다마리스, 헤로히야, 샵디오, 사라, 크리스틴, 바로, 자와디’ 8명

‘칼라차’ ‘홀라홀라’ 교회 사역



〈칼라차, 홀라홀라 교회 사역 모습〉

‘칼라차’ 교회와 주변 마을은 식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조만간 식량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칼로’ 마을은 교회 건축에 필요한 땅부터 알아 보고 있는 중이며 AIC 교단 안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류를 구비하고 공사를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미리 준비하도록 이야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상적이고 정식적인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기도함으로 함께 이곳에 교회를 잘 세우기를 기도하며 준비 중입니다. 생각 나실 때마다 ‘칼로’ 마을을 기억해 주시고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칼라차’ 교회와 ‘홀라홀라’ 교회는 음향과 시스템을 새롭게 구매하였고 ‘칼라차’ 교회도 보내주신 TV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마이크나 라인 등, 음향 시스템이 망가진 부분이 있어서 교체할 예정이고 최근 교회 배터리가 작동이 되지 않아 새롭게 배터리를 구매하여 설치하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홀라홀라’ 교회는 전기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태양열 설치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 케냐 전력을 알아보고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홀라홀라’ 교회 이름으로 정식적인 절차로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데 당장 교회등록 서류가 없어 ‘AIC마사빗’ 교회에 요청을 하여 정식적인 서류를 만들고 설치를 하려고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최근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홀라홀라’ 주일 예배에 남성 어른 4명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개척 후 이때까지 예배드린 이래로 남성분이 가장 많이 예배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아저씨들에게 계속해서 예배에 잘 나오도록 권면했습니다. 비록 나이가 있는 노인분들이지만 이들의 가족과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니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에서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의 일들이 잘 처리가 되고 해결이 되어서 좀 더 발전된 모습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가족 이야기 및 앞으로의 계획



〈가족들 모습과 사역지에서의 모습〉

하운, 예운이도 방학 기간 팀들이 방문하여서 단기선교 기간 동안 함께 도우며 어린이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특별히 율동하는 부분이나 간식을 나눠주는 일에 있어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홀라홀라’ 제자 훈련 아이들과 ‘나뉴키’에서도 함께 즐겁게 이야기하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받았고 이제 방학이 끝나 일상으로 돌아와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강 선교사는 지친 마음 가운데 있지만 때에 따라 힘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혼육을 회복 시켜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팀들이 다녀간 후에 일상으로 돌아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 ‘마사빃’에 작년에 이어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소수만을 초대해서 집중하는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100명 미만) ‘마사빃’에서 드리는 세미나를 통해 이곳의 목회자들이 위로를 얻고 연합하고 새롭게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후에 ‘칼로’ 마을에 교회를 짓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도록 준비하고 마을에 식량을 지원하고 ‘홀라홀라’ 어린이 예배를 청소년과 분리해서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청소년들의 수준에 맞도록 예배를 드리고 제자로 잘 훈련 시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최근 세계 곳곳에 들리고 보이는 일들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 더욱 나아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케냐의 상황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한 영혼을 잘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맡아서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안과 안전이 좋아지고 여전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하반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사람들의 감사로 은혜가 더욱 넘치는 일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케냐 ‘마사빃’에서
전요한, 강미선, 하운, 예운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1. 9월 17-19일 마사빛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각 종족 목회자들의 큰 은혜와 연합이 있도록
2. '칼라차'로 가는 길 공사가 순조롭게 빨리 진행이 되도록
3. '올라다바' 교회와 주변 마을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마을 사람들이 더 많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4. '홀라홀라' 교회 예배가 잘 나뉘지고 전기 공사와 마마, 어린이 사역이 잘 진행되어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5. '칼라차' '칼로' 마을에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모든 서류와 준비해야 할 것이 순조롭게 잘 준비되도록
6. 강선교사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가족들이 모두 건강함으로 은혜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